

중도일보

1951년 창간

中 都 日 報

joongdo.co.kr

COI란?	COI는 IETF(국제기구)에 URN NID로 등록된 UCI의 국가 단위 표준 식별체계 표기법입니다. 자세한 내용보기				
COI	G700:RA106+01400351-01400351:20090930:01400351.2009093010002614599:1	제호	13292		
RA기관	언론재단	서비스명	뉴스인증 서비스	면번호	2

대전문화재단 살림꾼 누가될까

사무처장·직원 채용공고... 지역예술계 관심고조

[대전=중도일보] 대전문화재단이 설립절차를 마무리한 가운데 사무처장 이하 직원채용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

특히, 문화재단의 내부적인 행정을 총괄하게 될 사무처장의 경우 직원 채용공고 이전부터 일부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등 지역 문화예술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.

대전시는 내달 말까지 직원채용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29일 사무처장 1명(계약직 공무원 `가'급에 준하는 대우)과 팀장 2명(`다'급), 팀원 4명(`마'급)에 대한 채용공고를 냈다.

채용공고가 나기까지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예술단체와 기획사, 학계 등 5~6명의 인사들이 사무처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.

일부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“사무처장이 이미 내정된 것이 아니냐”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지만 아직 원서접수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누가 사무처장 자리에 앉을지에 대해서는 `아직 알 수 없다'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.

한 문화예술계 인사는 “예술단체 지원이 핵심인 문화재단의 성격 상 사무처장의 영향력은 경우에 따라 매우 막강해질 수 있다”며 “지원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예술단체들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사무처장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”이라고 말했다.

시 관계자는 “타 시도의 경우 직원 채용에 100여 명이 응모했는데 대전도 비슷한 수준의 인원이 지원할 것”이라고 전망한 뒤 “채용과정은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한편, 시는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. /강순욱 기자

기여자	강순욱 기자	제작일	2009-09-30	등록자	중도일보
-----	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

저작권자 역할	언론사	기여자 ID	romero777	컨텐츠 유형	TEXT
저작권 정책?	본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어문 저작물 로써 사전동의나 허락 또는 계약 없이 딥링크 방식이나, 프레임 방식 등 무단 게재를 허용치 않습니다.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뉴스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인 한국언론재단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 (http://dnc.kpf.or.kr/d1.htm) 연락처 : (02) 2001-7859				